

기독교 지성사와 기독교 대학 운동

이 근 삼

I. 기독교 지성의 역사적 발전

1. 고대 로마시대의 이방 고등교육

고대 로마 공화국에서 노예들과 장인들의 교육에 반대되는 자유인의 교육에 해당하는 지식의 분야들을 Liberal Arts¹⁾ 라고 하였다. 이런 공부는 사람이 공화국 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로마교육은 그전의 헬라의 교육과 같이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예를들면 건축가 Vitruvius는 로마시대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건축기술에 관하여 말하면서 "건축가는 문학의 사람인 동시에 기능공이며, 수학자이고 과학에 익숙한 사람, 열심히는 철학도이자 음악을 아는 사람, 의술에 무지하지 않은 사람, 법률을 알고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천문학과 천문학적 계산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로마의 고등교육은 수사학과 문학에 강조를 두었다. 다시말하면 로마의 학교교육은 기능공 배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 국가에 충성하며 또 좋은 성격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로마의 수사학 교육은 건전한 지도자를 위한 만족스런 준비과정이 된 것이다.

2. 고대 기독교의 고등교육

위에서 말한 로마시민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수사학적 자유민의 교육은 초대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자 교육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방세계의 문학과 기술은 부패한 것으로 보였고 그 관리들은 신자들에게는 대부분 폐쇄된 자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건전한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점차로 Liberal Arts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헬라 교부들은 헬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문학과 철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가치있게 보았던 것이다.²⁾ 터툴리안(Tertullian)은 신자들을 상담할 때에 Liberal Arts 교육을 받도록 권했다고 한다. 그것은 그가 이방문학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 보다는 신지식과 일반적 인간생활을 위한 근본적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시대의 고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현상은 교리학교(the catechetical schools)라고 할 수 있는데 클레멘트(Clement)와 오리겐(Origen)의 지도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운영된 것이 가장 유명한 학교였다. 이 학교는 본래 사제나 목사를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대학교를 모방한 것으로 누구든지 기독교 교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개방된 연구센터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동방교회의 교리학교들은 신학과 주해학 교육의 창의적 중심역할을 하면서 대체로 그 당시의 기독교는 헬라적으로 발전해 갔다. 예를들면 클레멘트는 기독교를 이방종교나 철학들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의 어떤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철학이 헬라인들에게 신의 계시인 것은 마치 구약이 유대인에게 신의 계시임과 같다. 사실 헬라철학은 헬라정신(Hellenistic Mind)을 일깨워 주는 선생님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율법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됨과 같다. 사람이 철학없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철학이 없이는 신앙의 깊은 것을 이

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¹⁾

클레멘트와 오리겐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노시스적 기독교(Gnostic Christian), 즉 성경지식을 이방의 가장 고상한 사상과 함께 받아들여서 학식과 교양있는 신자가 되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로마공화국이 주장하던 국가의 지도자 훈련이라는 사상은 없 어지고 만다.

성 어거스틴(Augustine)은 클레멘트와 오리겐 이 말한 기독교 신앙과 이방학문 간의 중합적, 또는 혼합적 이해를 반대하였다. 어거스틴의 신앙과 지성(credo ut intelligam)의 주장은 신앙은 이미 획득한 지식 위에 세워진 모자가 아니고 신앙은 지식의 전제조건(pre-condition of genuine knowledge)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클레멘트와 오리겐과 같이 신앙은 지식에서 그 성취를 본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어거스틴은 강조하기를 획득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지식은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과 영혼, 그것은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외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⁵⁾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두가지 인식: 지혜와 지식(wisdom and knowledge)를 구별하여 "지혜와 지식간의 올바른 구별이 있다면 영원한 것의 지적 인식은 지혜에 속하고 감정적인 것의 이성적인 인식은 지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것을 물리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어렵지 않다. ... 전자를 후자보다 선호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⁶⁾ 고 하였다.

어거스틴의 Liberal Arts 에의 접근은 클레멘트와 오리겐보다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로마공화국이 목적인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 훈련을 원하지 않았고 Liberal Arts 를 인간의 신지식과 성경이해를 위한 공헌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신국>에

서의 기독교 시민권을 말한 것이다. 이 새도시의 시민들의 활동은 하나님을 아는 만족한 지식을 바라는 것이다.

3. 중세 대학

중세초기의 지적부흥은 대체로 로마의 교육이 기독교화 된 것이었다. 성당과 수도원에서 경영하는 학교에서는 몇몇 Liberal Arts 과목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수사학은 법률을 포함했고 기하학에도 지리학, 자연과학과 의학을, 그리고 천문학에는 교회력을 포함시켜 교육하였다. 그러나 회화, 문학, 역사는 제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세초기의 서구사회에서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회 승려들 뿐이었다. 그래서 Liberal Arts 를 공부하는 정당성은 승려들의 직업교육에 그 필요성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세기에 일어난 대학에는 철학이 Liberal Arts 대학과정을 형성하는 7개 과목에 첨가되었다. 그리고 복구라파의 대학에서는 Liberal Arts 대학에 3개 전문 대학원(신학, 법률, 의학)이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Liberal Arts 대학을 졸업한 자가 진학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7개 Liberal Arts 과목과 철학은 전문적 연구를 위한 필수 요구조건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중세 대학교육은 전문인 양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펠라 철학자들을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간이성이 가장 고상한 능력(faculty)이지만 물질세계의 지식을 결코 등한시 하지는 않았다. 그 지식은 궁극적으로 신지식에 이른다 고 생각하였다. 스콜라 사상에서는 신학이 제시의 원리를 취하여 신앙의 설명과 변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과학들은 이성으로 그 원리를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제시



이근삼 박사는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개혁주의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신학교와 고려신학대학 및 고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칼빈, 칼빈주의>, <Th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칼빈주의 문화관>이 있다.

는 인간이성을 시정하기 보다는 인간 이성에 첨부된 것이다. 제시는 구원에는 불가결의 것이지만 참된 지식을 얻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더우기 토마스주의자들이 확신하는 바이며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 바는 헬라 철학이 자연이성의 충분한 사용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헬라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신앙의 선문(preamble)을 구성하였다.

4. 문예부흥, 인문주의 교육

문예부흥에서 의미하는 인문주의자(humanist)는 시문, 역사, 도덕철학 등을 이해하는 문법, 수사학등의 Liberal Arts의 선생 또는 학생들이다. 개인의 존엄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목적이 문필과 교양있는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인문주의 운동은 여러모로 로마의 수사학적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인문주의자들에게는 어떤 학문을 변증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학식있는 사람(a learned man)을 이상으로 하지 않고 고전문학에 깊은 취미를 가지는 사람을 그 이상으로 삼았다. 즉 로마공화국 시절의 시민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그 고전에 심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문예부흥의 인문주의는 시민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양성 사상을 재생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Liberal Arts공부는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것이었다.⁷⁾ 그런데 문예부흥 시절에 새롭게 강조된 중세기 교육의 불변의 주제는 경건과 교리(pietas et doctrina)라고 정의되었다. 기독교 초기부터 이 주제는 학문과 예배생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견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중세기의 수도원 학교에 학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공존하였으나 자유학문은 예배생활과 봉사에 종속됨으로써 수도원 공동체 속에 통합된 것이다.

문예부흥에 있어서는 공동생활 형제단(the brethren of life)으로 알려진 화란의 유사 수도원에서 발생한 현대헌신운동(The Devotio Moderna Movement)이 다시 경건하고 학식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은 강조는 인문주의자들과 대등한 것이었다. 인문주의자들은 강조하기를 자유교육은 학식과 덕행(virtu et doctrina)의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영향이 구라파의 모든 교육에 크게 미친 것이다.

현대헌신 운동과 인문주의 운동은 대부분이 대학 밖에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특히 인문주의 운동은 대학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문법과 수사학이 점차로 논리의 위신을 침범하고 대학 교과과정에 고전어 연구와 고전문학 통독을 취임시켰다. 이런 인문주의 과목을 합친 중세 교과과목

편성을 18세기 말까지 구라파대학은 거의 다 취했던 것이다.

5. 종교 개혁 고등교육

종교개혁은 대부분이 북구의 대학과 고등교육 기관 안에서 일어났다.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종교개혁이 준 자극으로 많은 대학들이 개혁되고 신설되기도 하였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지 2-3년내에 독일 대학들은 학생등록이 격감하였다. 예를들면 Erfurt 대학은 1520 - 1521학년도 등록학생수가 311명이었는데 1527년에는 불과 14명이었다.⁸⁾ 이런 결과는 루터가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중세 Scholasties는 반대하였지만 건전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루터가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말할 때에 고전어학 지식의 필요성은 성경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결코 고전문학이나 과학에 흥미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루터의 후계자 멜랑히톤(Melanchton)은 인문교육을 받았고 인문주의 운동에 동정적이었는데 독일의 교육을 개혁하고 신교적 기초위에 대학을 세우게 된 것은 그의 일이었다. 그는 모든 Liberal Arts과목의 교과서 편찬을 하였고 고전어학과 문학공부를 장려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많은 도시에 교육적 자극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루터파의 사람들로 인해서 Wittenberg, Tübingen, Leipzig, Frankfurt, Rostock 등 옛 대학들이 개혁되었고 Marburg, Königsberg, Jena, Helmstedt 등 새대학이 창설되었다.

칼빈의 종교개혁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은 루터파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칼빈 자신은 파리대학에서 학생으로 인문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그의 초기저서는 Seneca의 책, 특히 Cicero의 주석서였다. 칼빈은 과학과 실제기술에 관한 고대 서적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기독교강요에 "우리는 이런제목들(율법, 철학, 수사학, 의학, 수학등)에 관한 고대서적들을 경탄없이 읽을 수 없다. ...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없이 과찬하거나 고상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이란 사람들은 물질세계에 대한 탐구가 참으로 예리하고 철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주님이 인간 본질에 남겨놓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를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⁹⁾ 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Geneva Academy 설립에 주동적 역할을 했는데 기금모집, 교과목 편성, 규칙제정등을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교수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 후에 칼빈주의자들의 후원으로 Heidelberg 대학이 개척되고 새로운 대학들이 Cambridge, Edinberg, Laiden, Franeker, Groningen, Amsterdam, Utrecht, Nimes, Montpellier, Montauban, Saumur, Sedan 의 도시들에 설립되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들의 주요 견해가 사람의 궁극적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명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모든 직업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사람은 그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교회를 약화시켰던 지성적, 영적 귀족사회의 파괴를 의미하였다.

이 봉사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첫장에 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사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이 없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1541년의 Geneva Catechism에도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고등교육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중세의 지적목적도 아니고 인문주의자들의 단순한 문화적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와 시민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막으로 남겨놓지 않으려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을 세워야하고 교역자와 시정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¹⁰

칼빈은 루터 이상으로 기독교 복음은 사회일반의 개혁을 교회와 개인의 개혁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은 고등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했고 교육목적은 시정과 교회봉사를 위한 개인 훈련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사회개혁을 위한 한부분으로 생각했다.

신교 대학의 대부분의 교과과정은 신학과 성경연구, Liberal Arts 7개 과목과 철학, 새인문주의 과목들이었다. 예를들면 Geneva Academy의 교과과정은 고대어 (Latin, Greek, Hebrew), 고대문학, 예술과 과학등이 포함되었고 매일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났다. 하루 한 시간은 시편찬송을 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다 외우고 매 수요일에는 설교를 듣고 토요일에는 교리문답(catechism)을 공부했다.

6. 현대 구라과대학

17세기 신지식의 발전은 고전연구나 신학분야

에서 보다는 자연과학과 철학분야에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신교의 대학들의 신학은 논쟁으로 혼란해지고 주해적 신학보다는 변증법적 신학을 따라가게 되고 복음주의 기독교가 대학의 학문에 창의적 중심이 되지 못하고 대학들은 복음주의적 성격을 상실해갔다.

불란서 혁명 이후 독일의 대학들은 면모를 달리해갔다. 그들의 대학 밖의 학원들과 과학원들과 협력하여 현대대학의 기틀을 잡게 되었다. 그 중심은 인간 이성의 자율화와 자유인을 위한 자유탐구를 제책하는 것이었다. 19세기에 와서는 Tomas H. Huxley가 독일대학의 19세기 중엽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대로 "1세기 전만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독일대학이 지금은 세계에 전례없는 가장 교양있고 생산적인 지성적 모임이 되었다.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과가 다른과 보다 더 우월하지 않는 인간의 높은 문화를 위한 기관이다. 인간지식의 전체성을 대표하고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적활동의 모든 양식을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대학이다."¹¹

그러나 영국 대학들은 근년에 이르기까지 귀족들의 독점으로 남아 있었고 선발된 계급의 훈련장으로 생각되어 왔다. 대륙의 대학보다는 더 전통적이고 고전적 Liberal Arts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모든 학문과 문화를 수학을 제외하고는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탐구(research)보다는 가르침(teaching)을 강조하였고 전문적, 직업적인 훈련을 피하고 일반적으로 문예부흥의 인문적 방법과 유사하였다. 대학의 기능은 전문인 산출보다는 학식있고 교양있는 신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John Henry Newton은 그의 "대학의 이념"에서 전통적 영국 대학을 웅변적으로 변호한 것은 유명하다. 아마 John Stuart Mill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Mill은 St. Andrews 대학 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그가 법률가나 의사나 상인이나 기능공이 되기 이전에 인간이다. 그가 유능하고 다감한 전문가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학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하고 특별기술을 조망하는 일반적 문화의 빛을 가지고 가야한다. 일반적 교육 없이도 유능한 의사나 법률가가 될 수 있다. 새밀한 기억 대신에 원리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철학적 법률가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 교육에 의존한다."¹²

7. 미국 고등교육

1) 미국 대학의 기원

1636년 Harvard 대학(college)의 설립은 복음

주의 기독교 분위기와 확신을 가진 초기 미국 대학들의 설립의 좋은 예가 된다. 청교도들의 교육의 첫 동기는 교육받은 목사를 원했던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밖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봉헌된 배움의 장소를 원했던 것이다. 1641년에 기록된 New England's First Fruits란 pamphlet에 Harvard 대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New England로 무사히 인도하신 후 우리는 우리집을 짓고 생활 필수품을 마련했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 편리한 장소를 만들고 정부를 세웠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일은 교육을 증진시키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영속시키며, 현재의 우리 목사들이 죽을 때에 무식한 목사를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¹³ 그리고 Harvard 대학 학칙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평범하게 학생들에게 알려 드리되 깊이 상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과 학업의 주요 목적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과 모든 건전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¹⁴

Yale 대학의 기초와 그 초기 성격도 같은 것이고 Columbia 대학의 전신인 King's College는 1754년에 설립되고 그 학장이 대학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대학이 목적하는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되 온전한 마음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근신과 경건과 의로운 생활로써 하게 하는 것이다."¹⁵

이와같이 종교활동은 대학시절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고 기독교적 성격형성은 기독교 대학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2) 미국 대학교육의 발전

19세기는 미국대학의 고전적 교과과정에 불만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자연과학에 관심을 두고 탐구를 격려하고 기술적 특수훈련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대학의 자유를 원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와같은 경로를 통하여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현상은 미국 College들의 교과과정에서 고전주의는 없어지고 미국 종합대학(American Universities)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즉 1860년대에 Cornell University, 1876년에 Johns Hopkins University의 설립은 American University의 시작을 기하는 것이었다. 이 대학들은 독일의 대학들을 모방했고 얼마 후에 대학원을 세워서 특수화, 전문화에 박차를 가했다.

19세기 후반의 대학의 주요경향은 자유선택 과목들을 많이 들으로써 자연과 사회과학의 발전, 고등연구의 성장, 전문화-특수화의 증진, 교과과정의 자유선택을 하게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옛것

은 쇠퇴하고 새로운 제도의 확립에 앞서 기술적 인간주의(technological humanism)로 기울어졌다.

20세기의 교육사상은 자유선택 제도에서 온 무목적과 불화합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제도의 대학을 지배한 Liberal education의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은 같은 종류의 교육(기본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꼭 같은 고전문학서를 읽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전문학이라는 공통성 있는 것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교육을 받은 공동체가 된다. 그런데 자유선택 제도의 발달은 이런 일반교육을 무시하고 파괴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19세기 후반과는 달리 어떤 의미로는 옛것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 첫 발전은 1919년 Harvard 대학 총장인 Lowell 씨가 집중과 분산의 결합(a combination of concentration and distribution)을 주장한데 있다. 그렇기는 하나 미국 교육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상실하였고 전망이 없어진 것이다. 본래 기독교는 목적을 주고 교과과정에 통일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이 쇠퇴되고 종교적, 철학적 분열은 오늘날의 고등교육을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침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다. Harvard의 일반교육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 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목적과 이념을 통일하는 것이다. 1세기전만 해도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은 곧 기독교 시민을 훈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성취에도 의심이 없었다. 학생들의 논리적 능력은 수학으로 얻게하고 취미는 헬라와 라틴의 고전에서, 화법은 수사학으로, 이상은 기독교 윤리로 키워간다고 알았다."¹⁶

이런때에 기독교 대학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즉 젊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함에 있어서 넓고 깊은 의미에서 모든 학과목의 수업, 모든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상상적 활동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가르침과 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

II. 20 세기의 기독교대학

1. 대학가의 위기

오늘의 대학은 전반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훈련된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현대 기술사회는 많은 노동력을 위한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는데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은 전문적 표준과 엄격한 선발에 대하여 전통적인 기초위에서 훈련해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많은 무선발전적인 학생들이 대학에 학력고사의 점수만 가지고 들어와서 대학의 본질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대학은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대지, 건물과 시설, 직원동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축소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학생들이 학교 기구의 변동을 가져오고, 여러가지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다.

대학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사실들을 보면 대학이 지니는 인생관, 목적, 교과과목, 방법론, 조직, 표준, 훈련등이 새로운 의미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a.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배석 판사격이 되고 자기들의 공부를 완성시켜 주는 대학에서 공동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편성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과 우월성에 관한 문제를 학생들의 배석재판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한다. 다시말하면 학생들이 대학의 학사행정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들이 폭주하게 되면 대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b. 새로운 세대는 성인사회에서 주어진 사회질서와 지위보다는 개념에 함축성을 가진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생활에 따른 책임문제 때문에 제한된 것이 많으나 젊은 세대는 자아창작의 문화와 자기세대의 사회안에서 자기의 선호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급기야 세대간의 격차가 생긴다. 대학에 입학하는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저희들의 모든 사회적 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저희의 원대로 행하고자 한다. 대학도 학생들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소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더우기 중립적 대학의 근본적 요인은 대학이 그토록 자랑해 왔던 객관적, 이성적 사고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사회의주의를 취하는데 있다.

c. 현대대학의 성격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했다. 대학의 모든 근본적 특징들이 다 대학은 과학이 그 함축하는 것을 실현하는 곳이라든가 수용된 표준대로 개인이 인간으로서 또는 과학자로서 형성되는 곳이라든가, 전문인들이 각각 국가, 사회와 교회, 문화와 경제에 봉사될 수 있는 곳, 즉 세상이 필요로하는 빛의 등대로 서 있는 학교, 그런 배움의 터로 인정받기는 어렵게 되어있다. 이것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학이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유능한 선택된 소수를 위한 곳이 아니고 능력에 상관없이 대중적 국민을 위한 국립학교와 같이 된다면 대학의 성격은 불가불 변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과학인이거나 전문인을 자유로이 형성하는 곳이 못된다. 그러나 대학은 개인들을 생태의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본성에 대한 확신에 따

라서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대학은 지금 자유를 잃고 학생들 특히 미숙한 학생들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대학은 대부분이 신앙신조를 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신조가 과학지식, 과학의 실재와는 불합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교육할 수 없고 교조적이 되므로 개인과 대학의 자유를 저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류와 해석은 우리들에게는 현대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오늘의 이런 경향은 단시일에 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진전과 변화에서 온 것이다. 그것은 대학의 모든면에 있어서 인본주의 견해가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고 사람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승화시키고 진보사상이 우상화되어 결과적으로 수세기 동안 전개하여 온 문화적 전통을 파괴하는 세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대학이 된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기독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위에 말한 대학의 위기를 대항하는 심각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범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현존 질서의 불완전하고 죄 많은 것을 규명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쉬지않고 노력 할 것이다. 위에 말한 개혁을 위해서 탐구하는 것은 전체적이고 그 정당성을 성경적 신조에서 찾으며 또 대학을 위해서 자유를 영원과 완전에서 찾을때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기독교 대학의 성경적 신봉자들은 대학을 성화된 과학화의 길에 전진시키기 위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근본적 특징들을 가진 대학의 기존 규정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빚가운데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복종시켜야 한다.

2. 기독교 대학의 요건들

a. 기독교대학의 성격을 유지하는대는 기독교 신앙신조(confession or creed)를 고수해야 한다. 어떤 대학들은 신조를 갖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대학들은 교수들과 직원들은 신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학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기독교대학들도 어떤 대학은 그런 중립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과학적 이유 때문에 신앙신조는 갖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대학에 있는 기독교인 교수들도 기독교 대학에 봉직하는것 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는데 그 이유인즉 거기서는 아무도 자기 개인의 신조의 결정을 어떤 규정으로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신자들은 기독교 학교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신조를 가진 대학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

은 대학을 신앙하는 사람보다는 건물의 집합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불신에 도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성경을 손에 쥔 친구들로부터 반대를 받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대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신앙신조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조가 우리 대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받게 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라야 한다.

모든 과학적 활동, 교수내용, 전문적 훈련, 지역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대한 봉사등 모든 것이 다 이 생명을 바치는 신앙고백적 신조하에 발육되는 것이다. 즉 기독교대학은 모든 기관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고 전파하는 것이다.

대학은 본질상 인간문화의 산물이며 창 2:15에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문화적 명령에 그 존재적 의미를 가진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대학이 끊임없이 쉬지않고 신국과 세상, 창조 실체들의 한계사이에 일치를 가져오는 원리가 되는 것이다. 대학은 롬 11:36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주의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왕적 주권을 선포하고 그 모든 과학적 실체와 교육과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의 인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신조에 동의하는 자는 과학분야에서 선입관을 가졌다고 하여 비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주입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모든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어느 분야나 종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책임의 특권을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됨을 인식한다.

b.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적 과학을 연구하고 연습하는 사명을 가진다. 기독교대학은 과학을 연구하고 실재화 하는 곳이다. 기독교대학으로서는 "과학을 기독교적 전망 없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적용되는 모든 방법들은, 가장 영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기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상의 완전한 본질을 찾기 위하여 첨가된 요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뜻있는 마지막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불신자들은 기독교 과학을 비과학적, 주관적이고 신앙과 이성을 혼돈한다고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신자들이 과학적 Level에서 신앙은 지성인들에게 불합리하므로 기독교 과학은 치명적이라고 한다. 그들은 인간 노력의 중요한 장

면을 예수그리스도의 주권에서 이탈하되 저희 신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독교 과학자들은 정신분열증에서 떠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고도의 과학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c. 기독교 대학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대 대학생들은 스스로 성인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기전에 대학을 마치는 형편이다. 그들은 So Much Younger Generation 이다.

대학이 비록 학자 교수들, 강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모임의 단체로서 학문을 진지하고 정확하게 고도의 수준에서 탐구 발전시키고 있으나 인간형성의 과정에 있는 성숙 또는 미성숙한 개인들을 취급하고 원리문제들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을 제기하여 생철학의 용어로 대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대학 Level에서는 교육학적 행동(pedagogical act)을 설명하는 장소는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대학은 그 임무가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안에서 저희들의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인간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대학은 파괴된 인격을 생산할 수는 없다. 모든 창조를 학문의 통일된 조화로 결합시키는 "통일된 조화"를 그 속에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대학이라고 할 것이다.

d.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제이차적 임무이다.

학문적 연구과정과 인간형성의 과정에서 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근본적인 임무이다. 그것을 통해서 제3의 요구에 도달하는 것을 제이차적 임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전문인을 양성하여 저희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을 쇄신하는 기본원리의 실천자로서 저희 자리를 차지하게 해야 한다. 일반교육과 특수과학 훈련이 모든 생활의 영역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제3의 Level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근본적 성격이다. 여기에 기독교 대학으로서 막대한 의무가 요구되는 미개발의 분야가 있다. 우리는 기독교 전문인 양성에 노력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지상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으로 기독교 대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면서도 이 세상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문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기관이어야 한다.

주

- 1) 현대 대학의 교양과목(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어학 등등의 모든학과)를 말한다. 그러나 중세에서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사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의 7과목을 말한 것이다.
- 2) Vitruvius, On Architecture, I.1,3, Trans. by F. Granger, Cambridge, 1945, p.9
- 3) cf.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N.Y., 1894, vol.VII, pp.398-9
- 4) Anti-Nicene Fathers, VII, p.539
- 5) Soliloquies, I.7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VII, p.539
- 6) De Trinitate XII, se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vol.III, p.165
- 7) Vergerius, De Ingenuis Moribus, c.1404. Ed. and Tr. in W.H. Woodward, Vittorino da Feltre and other Humanists Educators, N.Y. 1963, p.110

- 8) F.Eby, The Development of Modern Education, N.Y., 1955, p.64
- 9) Calvin, Institution of Christian Religion, 2:2:15
- 10) Calvin, The Ordinances of 1561
- 11) A Liberal Education: and Where to Find it, Lay Sermons, Addresses and Review, N.Y., 1878, pp.50-1
- 12) Dissertations and Discussions, Boston, 1867, vol.IV, p.338
- 13) R.Hofstadter and W.Smith, American Higher Education: A Documentary History, Chicago, 1961, p.6
- 14) S.E.Morison, The Foundation of Harvard College, Cambridge Mass, 1935
- 15) R.Hofstadter and W.Smith, American Higher Education, p.110
- 16)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Cambridge, Mass, 1945, p.43

*질의응답: (본 보의사항은 1988.8.28(금)-29(토), 양일간 서울 C.C.C 부암동 수련원에서 열렸던 제9회 하계 연합강좌시 이루어졌던 것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문

신학대학 교육의 문제점 및 보완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국교회의 청년대학생 선교와 교육의 현주소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답:

여기서는 신학교가 아닌 신학대학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신학대학을 'Bible College' 라고 합니다. 한국의 신학대학은 대부분 교파에 속해있고 신학교로 인가를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학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신학과만으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교회 봉사와 관계 있는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음악과 등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교회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학대학의 문제점은 이런 교회 봉사와 관련된 과목들이 아닌, 기독교 대학에 속한 과목들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반과목이 증설되면 당연히 신학대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일반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대학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규모가 작고 학생수도 적으며, 교회봉사자만 양성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일반대학화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른 과목들을 많이 가질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교회의 청년 대학생의 교육과 선교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대학부나 청년부 모임이 있고 각 교회는 그들의 특수성에 맞추어 여러가지 교육에 힘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전담교역자를 두어서 그들의 교육에 투

자하는가 하면 다소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모두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연령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공부와 아울러 교리반을 운영해 교리 교육에 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만 먹일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은 음식도 먹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란의 Reformed 제통의 교회에서는 12세-18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두고 한분 목사님이 매주 교리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이 확립될 때까지 목사 한 분이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후에배나 저녁에배때는 주로 catechism 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므로 아주 강력한 교리적 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교리를 무시하려고 하고 성경공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리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계시의 계단을 밟아서 온 것이므로 성경만을 공부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논리적 체계를 갖고 남에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 발생할 때 그런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곧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교회의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교리반을 구성해서 공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목사로서 선교사로 나갈려고 하면 대학 4년과 신학 3년을 공부해야 하고, 선교사로 현지에서 서게 되면 신학의 모든 분야를 모두 총괄하여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선교 현장에서 목사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기능공, 농업 지도자 등 평신도 선교사로 나갈려고 할 때는 그 전에 선교훈련원에 들어가든지, 신학교에 가든지 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의 신학훈련을 받아가지고 체계를 세워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19세기 말 화란에서 일어난 칼빈주의 운동이 사회변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칼빈주의의 기본사상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이나 간섭, 혹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존하시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것을 홀로 행하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복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되 모든 만물에게도 각각의 영역마다 절대적인것은 아니지만 독자적인 주권이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이며, 그후 도 에베르트와 볼렌호벤 등이 칼빈주의 기독교철학을 창출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가 사회변혁에 끼친 영향을 생각해봅시다. 교육의 경우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의 주권" 사상은 자녀교육 영역에 있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을 대단히 철저하게 전수하고 그 정석을 이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나름의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켜주고 저녁예비 시간을 통해 교리 내용을 하는 설교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Reformed 제통의 신자들은 거의 이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관리 측면에서도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에 부여된 주권을 통해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양육합니다.

이와같이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가르쳐야할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자체에 부모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란의 사회적인 잇점입니다.